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6, 요한계시록 20장,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 소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 소개의 26번째 세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요한계시록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떠올리고 천년 통치 20장에 나오는 그림인 천년왕국 본문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0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천년왕국 자체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까지 장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일치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20장부터 시작하여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19장과 11절이 이 책의 새로운 부분, 즉 1911년부터 21장과 11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는 19장 처음 몇 절에서 17장과 18장,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두 쌍으로 짝을 지어 매춘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로마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9절 11절부터 21절까지 8절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장과 11절을 보면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다양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0장을 이 더 광범위한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20장에서 보게 될 내용은 19장과 11장부터 20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아마도 동일한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사건이나 장면을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즉, 19일부터 20일까지를 반드시 연대순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요한은 자신의 환상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것, 그리고 나서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환상의 순서, 즉 그가 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 반드시 일이 일어날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0장,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반드시 엄격한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그 사건들을 탐색하는 다양한 관점이나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 19장과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짐승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포함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의 형태로 재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20장에서 우리는 20장이 주로 일련의 심판 장면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0장의 주요 주제는 여전히 심판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0장에서 우리는 이제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도 심판을 받고 폐위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제안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흥미롭게도 19장과 20장에서 12장과 13장에 소개된 구절 순서대로 두 짐승과 용을 심판하거나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20장은 세 가지 다른 장면을 결합하고 모두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처음 세 구절에서 발견되는 것을 봤는데,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첫 장면은 처음 세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20장 4절과 10절인데,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년왕국을 하고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풀려나 마지막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장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것이 크고 백보좌 심판입니다. 처음 두 장면은 우리가 살펴볼 천년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장의 이 세 장면을 각각 검토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0장을 읽고 1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지내니라

그를 무저갱에 던지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다. 나는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것이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가로질러 행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라.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지고 그것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크고 작은 자들이 보좌와 책들이 펴 놓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졌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았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부분을 각각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사탄이 결박되어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는 환상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두 짐승은 이미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탄이 소개되고 그의 심판이 소개되지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배경의 일부는 12장에 나오는 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12장과 13장과의 연관성 중 일부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 묘사된 것과 똑같은 용에 대한 언급은 고대의 용이라고 불립니다. 뱀은 마귀이거나 사탄이다.

이제 12장의 동일한 드래곤이 여기에 다시 소개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의 형상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며, 예를 들어 초기 구약성서의 바다 괴물과 닮거나 그려집니다. 이제 사탄의 죽음이 소개되지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은 두 단계로 나누어 소개됩니다. 먼저 그는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20장 끝 부분에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무저갱이나 구덩이가 귀신의 집, 귀신의 집, 귀신의 감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메뚜기들은 분명히 악마적인 인물들과 동일시됩니다.

11장에서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오더니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져 갇히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마귀들의 감옥인 무저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용을 붙잡고 결박할 준비를 하고 사슬을 들고 내려오는 천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신이 이것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예수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소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천사가 이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이 책에 이원론이 없지만 하나님은 주권자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그의 천사 존재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탄을 묶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천사는 9장 1절에서 메뚜기를 쫓아내기 위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바로 그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어 불못의 심판, 최후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이중적 또는 이중적 심판은 구약성경과 묵시문학에서 악마적인 악 존재들이 어떻게 심판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사야서 24~26절을 다루는 부분에 소묵시록이라는 딱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1, 22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위로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함께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가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묵시적인 텍스트에서도 비슷한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녹전서 10장, 이것이 4절이고, 둘째로 주님께서 천사인 라파엘에게 아사셀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다엘에 있는 광야에 구멍을 파고 그를 거기 던졌습니다. 그는 그 위에 견고하고 날카로운 돌을 던지고 그의 얼굴을 가렸으니 이는 그가 빛을 보지 못하고 큰 심판 날에 불에 던져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이 아사셀은 어떤 주요 악마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탄 자신일 수도 있고 심판 날까지 돌로 덮여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묵시록인 에녹후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경비병들이 매달려서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자체가 어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천사적 존재들의 또 다른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4절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4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동일한 이미지와 동일한 이야기에 호소하고 의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 3장과 그 부분에 있는 옥에 갇힌 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절, 2장 4절에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보내어 심판 때까지 어두운 심판에 가두셨으니.

그러므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는 악마적인 천사 존재들에 관한 이 주제를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것이 17장에서 짐승에 대한 묘사 뒤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없고 장차 올 자로서 심판하러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저자가 구약성서, 묵시문학의 이미지,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리고 아마도 유다서 6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탄 자신, 즉 원형적이고 악하고 악마적인 존재, 즉 사탄 자신의 최종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두 단계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둘째, 그를 심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요한이 여기서 사탄의 심판을 두 단계로 묘사하는 이유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그분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으며, 누군가가 와서 강한 자, 곧 사탄 자신을 결박해야만 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요한이 그린 이미지이거나 요한이 예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즉 위식,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최초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탄이 최종적으로 결박되는 일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최종 심판을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9장 11절부터 21장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발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왕국이 그분의 초림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왔을 때 사탄을 결박하는 일은 초기 결속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탄을 최종적으로 결박함으로써 그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즉,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이 자신의 주석에서 말했듯이, 사탄은 무저갱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에 갇혔다고 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창세기 3장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12장 9절에서는 그가 만국을 미혹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20장과 12장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몇 가지 다른 연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나라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럴 수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는 열방이 다시 한 번 그의 속이는 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2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최종 공격이나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년 동안 그는 나라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왜 그가 국가를 속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이 결박되었으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장의 주요 주제가 여전히 심판, 결박, 그리고 사탄 자신에 대한 최종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 심판의 장면으로 끝나지만,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는 것이 20장의 주요 요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탄이 결박된 지 천 년이 되었으므로 다음 몇 절, 특히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사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거해도 1절부터 3절까지 자연스럽게 7절부터 10절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천년이 차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마귀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심판되는지에 대한 묵시적인 본문과 구약의 배경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삽입이지 여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단계의 사탄의 결박과 심판 가운데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살아나고 부활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천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다시 풀려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자주 다루어졌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맥락과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4절의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하는데, 이 보좌는 책 전반에 걸쳐 사용된 것처럼 4장과 5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왕권, 권위, 주권의 개념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이제 저자는 왕좌를 복수형으로 보지만 왕좌가 몇 개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장로들의 24보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4장과 5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24장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수의 왕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 위에 앉았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4절 전반부의 보좌에 앉으신 자들과 요한이 말하는 4절 후반부의 보좌에 앉으신 자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 이걸 별도의 그룹인가요? 그러면 보좌에 앉은 그룹이 있고, 이제는 간증 때문에 목이 잘려진 다른 그룹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한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봅니다. 이제 그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아 있는 이들이 천사적 존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본문의 배경이 다니엘서 7장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전체에 걸쳐 다니엘서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은 여러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절의 첫 부분인 4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늘의 권고, 아마도 천사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심판을 내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다. 그러면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은 성인이 될 것이며, 짐승의 손에 고통을 받고 죽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3장 21절,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중 하나가 이긴 자에게 있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라.

그리고 나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을 때 거기서 그 단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좌를 이기는 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성취로 보아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들이 지금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다.

더욱이, 어떤 경우이든,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이 된 사람들은 나머지 네 사람 중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통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4절의 두 부분을 단순히 같은 그룹을 묘사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봅니다. 둘째, 그는 같은 존재들을 보지만 이제는 그들을 증거로 인해 목이 잘린 자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들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 왕좌에서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4A와 4B가 소개된 두 그룹은 모두 동일한 그룹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번역판이 4절의 첫 부분을 번역한 것인데, 내가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은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좀 더 문자 그대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본문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내 생각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그들을 위해 주어졌거나 심판이 그들을 대신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림은

그들이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의 요점은 심판이 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주어지거나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7장, 특히 22절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마침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느니라. 즉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이 내려지고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의 성취에서 그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함으로써 입증됩니다. 이 기간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사탄이 결박된 정확한 기간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20장, 특히 10절을 통해 주로 사탄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미 12장과의 몇 가지 연관성을 지적했으며, 이는 사탄이 12장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식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니라(12장 9절). 또한 제단 위의 영혼들에 대한 4절의 설명을 주목하십시오.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 아래서 실제로는 6장과 9절부터 11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단 아래서 증언 때문에 목이 잘려진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또한 13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0장에 나오는 사탄의 심판의 일부로 이제 그 심판의 일부로 사탄의 손에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옹호하고 짐승. 따라서 그 모든 연결은 12장과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또한 다섯째 인, 즉 죽임을 당한 자들과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도들의 옹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사탄의 심판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완전한 역전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통치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살아나서 이제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더 이상 기만적인 일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성도들의 완전한 신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이 중요합니다.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이 통치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사탄의 왕국이 통치하고 성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두 짐승에게 주신 권세를 추구함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탄이 통치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반전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그의 왕국은 빼앗기고, 이제 성도들이 통치하고 살아나므로 우리는 그들의 의로움이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목이 잘린 영혼들이 누구이며,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과 같은 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그룹, 즉 실제로 목이 잘린 사람들과 짐승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거나 살해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는 안티파스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개의 분리된 그룹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과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그룹,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13장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둘을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표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적어도 요한의 환상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순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1세기 방식의 순교를 사용하면 신앙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표를 거부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을 사람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개의 별도 그룹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짐승 경배를 거부하고 이마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아마도 그들의 간증과 신실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그룹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요한은 충실한 증인을 지키고 짐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묘사하는 요한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들 중 마지막 한 사람을 모두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마지막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요한의 상황,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또한 그의 환상적 이야기에서 신실한 증인을 유지하고 짐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신실한 증인 때문에 순교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4절은 한 무리의 사람들, 즉 보좌에 앉은 자들과 그 다음에는 짐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증거함으로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고난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은 그 때에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고 이제는 그의 심판의 일부로 그의 심판에 수반하여 또한 사탄의 평결과 세상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평결을 내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 되느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돌아가서 11장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이 성도들을 죽였고 온 세상은 그것이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했으며 성도의 증언은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증되었습니다.

사탄은 갇혀 있고 갇혀 있으므로 이제 성도들은 그들의 증언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통치하고 사탄이 짐승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사탄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과 신실한 증인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으나, 이제는 정반대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이제 그들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많은 추측과 더 많은 혼란, 더 많은 논쟁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왜 오히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책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의 이 두 구절의 간결함에 비해 이 부분이 거의 등장했습니다.

이 세 구절은 이 책 전체의 중심 부분으로 거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천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지만 천년 기간, 즉 성도들의 삶과 통치에 대한 언급은 특히 4절의 두 번째 부분인 4절의 끝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언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밀레니엄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가 전체 신학 체계를 창조했거나 창조에 책임을 졌습니다. 종말론이나 종말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창조하는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그룹에 속한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문과 우리 교회의 교리적 선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접근과 해석학적 접근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계시록을 전천년적 관점에서 해석합니까, 아니면 비천년적 관점이나 후천년적 관점에서 해석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잠시 후에 이러한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 세 개의 짧은 구절이 그 자체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신학적이고 종말론적인 체계를 만드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식에 라벨을 붙이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에만 기초하여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천년에 대한 언급입니다. 천년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종말론적 체계, 즉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방식의 창조에 책임이 있고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천년왕국, 즉 천년에 대한 언급은 교회 역사 전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사고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익숙하며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과 방법을 소개하는 수많은 교과서에서 이에 대해 확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고 종말론이나 종말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표현하는 전반에 걸쳐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천년왕국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을 명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7장과 다른 곳,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의 일부와 같이 지상 통치, 지상 왕국에 대한 구약의 일부 기대에서 이에 대한 전조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약성서에서 언급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다스리신다는 바울의 논의 중 일부에서 언급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진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지금 여기 천년왕국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는 일종의 초기 용어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다른 곳에 없다는 뜻은 아니며, 이곳이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여기서 천년 왕국의 개념을 얻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간략하게 새천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하위 분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전천년설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을 똑같은 방식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이 포함될 수 있는 하위 분류 및 하위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전천년설로 알려진 견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기간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성취로 성도들과 함께 땅을 통치하실 미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에 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접두사 pre,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천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은 천년왕국 이전에 옵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황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19장을 심판하신 다음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오직 미래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 중 하나, 즉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접근 방식은 종종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의 모든 문자적, 물리적, 국가적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로 봅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다윗 왕조가 나라를 통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그 일이 일어날 장소로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천년왕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천년설의 주요 요점은 미래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세우시고 개시하시기 위해 먼저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견해는 후천년설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견해는 첫 번째 견해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를 고수하는 강력한 소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천년설은 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견해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여전히 미래이며 그것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래의 천년왕국, 즉 땅에서 일어날 미래의 통치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은 미래의 지상 천년왕국이 매우 기본적으로, 어쩌면 너무 단순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설교, 복음 전파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결국에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황금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 땅에서의 통치 이후, 황금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후천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레니엄이 미래에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첫 번째 관점인 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은 복음 전파와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의가 최고로 다스리는 황금시대가 도래할 지상의 미래 기간입니다. 그 사건 후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일이 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후천년왕국. 약간의 변형이 있는 세 번째 견해는 무천년설로 알려진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일반적이었던 매우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아(ah)라는 단어는 다른 두 접두사인 임시(temporal), 사전(pre), 사후(post)와 달리 아니오(no), 아니오(not)를 의미하는 일종의 사적 구성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밀레니엄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밀레니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물리적인 지상 천년왕국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특정 기간은 없습니다. 대신, 무천년설이 말하는 것은 전체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즉 전체 기간은 천년으로 상징되는 천년이다. 그리고 지금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성도들의 죽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점은 천년왕국이 어느 한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성도들이 그와 함께 다스리는 교회 시대의 전체, 교회 역사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몇 가지 관찰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관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신조 선언문 중 일부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천년왕국에 대한 성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관용해 왔으며, 수세기에 걸쳐 경건하고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견해를 모두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견해로 인해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고, 정통적인 입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것도 정통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교회 역사는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용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밀레니엄을 보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견해 중 하나를 갖지 않는 한, 당신의 성경에 대한 전체 견해가 의심받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당신의 능력이 의심되며, 당신의 전체적인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사와 이 장에 관해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논평을 통해 우리가 이 장에 온다면 겸손하게 본문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을 용인해야 합니다. 나는 천년왕국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양탄자 밑으로 쓸어버리고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 아니요,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정하고 텍스트를 읽는 방법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잡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이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취하는 모든 접근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읽든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나는 천년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3년 반이든 3년 반이든 다른 모든 기간을 보아왔듯이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개월 또는 1260일 또는 무엇이든, 30분, 1시간, 숫자 7, 숫자 12 등.

나는 우리가 다른 숫자와 시대에 대한 다른 언급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천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천년은 반드시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즉, 거의 모든 유형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길이와 기간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우리가 본 것처럼 숫자 10은 일반적으로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10 곱하기 100, 즉 큰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천은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기간이며, 짧은 길든 사실상 모든 기간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이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천년의 360일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일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이것의 중요성은 천의 상징적 가치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기간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 충만함과 완성을 나타내는 큰 어림수입니다. 두 번째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19장 11절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천년 통치에 관한 언급인 20장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19장 11절부터 20장 끝까지, 그리고 21장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일어날 일을 언급하는 일련의 이미지나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장 전체와 천년 통치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의의를 해석하는 다양한 장면이나 다양한 방식인 이 광범위한 이미지 시리즈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11장부터 시작하여 일어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장들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입니다. 19, 20? 요한계시록 19장은 최후의 심판 장면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의 기수와 백마입니다. 이 장면을 연대순으로 20장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일부 밀레니얼 계획의 핵심 가정, 즉 핵심 가정에서 이것의 매우 핵심 특징은 20장의 사건이 19장 이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제안한 것처럼 나는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항상 연대순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물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사물을 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요한은 같은 사건이나 같은 시기를 언급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장과 20장은 서로 이어질 수 있고 연대순으로 관련될 수 있지만 20장은 19장과 동일한 사건을 보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본문에서 19장 11절부터 시작하여 21장과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세 번째는 실제로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것인데, 이미 그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9장과 20장이 반드시 일련의 사건의 연대순

순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러 오는 기수와 백마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결박되고, 그 다음에 그가 결박된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전투에서 사탄이 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은 가능하지만 요한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확한 연대순을 제시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대략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기간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관찰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신약에서 천년 통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며, 중요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그러므로 나는 천년왕국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밀레니엄(Millennium)은 천년을 뜻하는 라틴어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천년의 지상 통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과 4절과 6절의 본문을 읽을 때,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즉, 성도들이 살아나서 통치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통치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아마도 그게 요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점은 단순히 그들이 통치하는 짐승과 사탄과 대조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통치할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통치하는지 땅에서 통치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즉, 본문을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가정은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며 구세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계시록의 강조점과 사탄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에 아마도 타당한 가정은 이 통치가 지상에서 일어난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1장과 5장에서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누구를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천년 기간 동안 일어나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치, 경제, 종교 체제를 모두 정돈하시는 긴 통치가 있는 때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문 중 일부에 대해 다소 비밀스럽고 불분명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본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간략한 이유 중 하나는 단지 서곡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선, 제 생각에 요점은 20장이 주로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심판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둘째, 이것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살아나서 여기서 다스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합니다.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모든 불꽃이 터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상급과 성도의 의로움과 성도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공개(22장 5절)는 성도가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난다. 20장은 단순히 그에 대한 기대이자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서는 모든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치 이것이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20장,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것입니다. 21과 22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천년왕국은 구약의 모든 물리적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응답입니다. 문제는 모든 본문, 즉 구약의 약속을 언급하는 모든 구약의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주요 목표는 요한계시록 20장이 아닙니다. 21일과 22일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해석이 계시록 자체의 강조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20장에 대한 해석은 20장, 즉 천년왕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계시록 자체의 강조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왜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그것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21장과 22장에 맞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절정,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옹호와 보상의 절정,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20장이 아니라 22장이기 때문이다. 21과 22.

그러므로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은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관찰 중 일부를 바탕으로 20장을 어떻게 읽는지, 그 의미와 관련하여 20장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장의 맥락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20뿐만 아니라 책 전체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 소개의 26번째 세션입니다.